

對美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분석



CONTENTS

목 차

요 약

I. 최근 對미 FDI 동향 1

II. 세부 동향 2

- 2 | 1. 투자국별 對미 FDI 동향 분석
- 4 | 2. 투자대상 산업별 동향 분석

요 약

□ 최근 對미 FDI 동향

-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10년 이후, 전반적인 회복세 시현
 - '13년에는 전년대비 36%나 증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08년 이후 최고치인 2,308억 달러 기록
- 미국 경기 회복과 셰일혁명 효과가 맞물린 결과

□ 세부 동향 분석

- (투자국별)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국가의 대미 투자가 압도적인 가운데, 최근 들어 M&A 형태의 일본과 중국 對미 FDI가 두각
 - 일본은 '13년 미국에 약 45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영국을 제치고 '92년 이후 21년 만에 對미 FDI 투자액 1위 등극
 - 중국은 투자 프로젝트 실소유주 기준*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13년에 1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 투자액 초월
 - * 중국의 해외투자 전문 연구기관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 한국은 광업 투자 여부에 따라 연도별 對미 FDI 금액이 큰 편차
 - * 최근 5년간('09~'13년) 한국의 연평균 對미 투자액은 39억 달러 기록
- (투자 산업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각광
 - 최근 5년('09~'13년) 간 투자대상 산업별로 연평균 FDI 유치금액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3%를 기록
 - 특히, 셰일가스 혁명 이후 에탄올 가격이 급락되자, 이를 원료로 하는 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
 - * 최근 5년간('09~'13년) 투자대상 제조업별로 연평균 FDI 유치금액을 분석한 결과, 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41% 기록

1 최근 對美 FDI 동향

□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난 '10년 이후, 전반적인 회복세 시현

- '12년 對美 FDI는 글로벌 경기하락 여파로 주춤하였으나, '13년 들어 전년대비 36%나 증가하며 반등
- '13년에는 '08년 이후 최고치인 2,308억 달러 기록
 - * '08년에는 3,100억 달러

< 對美 FDI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

'09		'10		'11		'12		'1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44	-53	198	38	230	16	170	-26	231	36

자료원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주 : 신고금액 기준

□ 미국 경기 회복과 셰일혁명 효과가 맞물린 결과

- 세계 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나홀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안전한 투자시장으로 재조명
 - * '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5.0%를 기록
 - * AT-Kearney의 '14년 FDI 신뢰지수에서 미국은 3.0 만점 중 2.16점 기록, 1위 차지
- '셰일혁명'이라는 유례없는 호재 요인까지 가세
 - 셰일가스 개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
 - * 셰일가스 채취시 얻어지는 에탄을 통해 석유화학제품 원재료인 에틸렌 생산
 - * '13년 주별 對美 FDI 유치액 순위를 보면 셰일가스 개발 및 처리 관련 주가 순위 차지(텍사스 1위, 루이지애나 3위 등)
- 이 밖에도, 신흥국과 미국 간 인건비 격차 감소,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소비자 근접 생산(build where to sell)' 전략 확산 등이 對美 FDI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

2 세부 동향

1. 투자국별 對미 FDI 동향 분석

□ (개황)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국가의 對미 투자가 압도적

- 최근 5년('09~'13년) 간 국가별 연평균 對미 투자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중 일본과 캐나다를 제외한 8개국이 유럽 국가*

* 영국령 카리브해 포함

- 對미 연평균 투자액 전체에서 상위 8개 유럽국가가 약 64%를 차지

* 영국 17%, 룩셈부르크 10%, 스위스 9%, 네덜란드 9%, 독일 7%, 프랑스 6%, 영국령 카리브해 4%, 벨기에 3%

- 특히, 영국은 연평균 투자액이 약 324억 달러로 명실상부 제 1의 對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

- 일본(218억 달러), 캐나다(190억 달러), 룩셈부르크(187억 달러), 스위스(173억 달러)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투자국별 對미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09	'10	'11	'12	'13	연평균
1	영국	18,373	30,069	46,316	25,250	41,909	32,383
2	일본	6,544	15,805	17,077	24,830	44,861	21,823
3	캐나다	30,366	7,357	18,790	15,339	23,336	19,038
4	룩셈부르크	17,349	29,461	11,989	8,673	26,101	18,715
5	스위스	10,710	41,406	19,894	-2,439	16,994	17,313
6	네덜란드	5,018	20,772	8,457	36,009	12,821	16,615
7	독일	12,320	18,760	16,396	7,337	11,859	13,334
8	프랑스	25,369	8,865	795	22,882	3,326	12,247
9	영국령 카리브해	2,481	5,627	14,859	5,942	8,801	7,542
10	벨기에	13,262	5,640	10,284	11,813	-12,811	5,638
12	한국	236	2,245	4,798	5,616	6,632	3,905
19	중국	500	1,037	1,105	3,491	2,419	1,710

자료원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주 : 신고금액 기준, 연평균 투자액 순위 기준으로 정렬

□ (경쟁국)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의 對美 FDI가 두각

- 일본은 '13년 미국에 약 45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영국을 제치고 '92년 이후 21년 만에 對美 FDI 투자국 1위 등극
 -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단기간 내 시장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대형 M&A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對美 FDI가 급신장세
 - *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넥스텔 M&A(216억 달러)가 '13년 일본의 對美 FDI 급증의 배경원인
- 중국의 對美 FDI는 미국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는 아직 미미하나, 투자 프로젝트 실소유주 기준*으로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13년에 1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 투자액 초월
 - * 중국의 해외투자 전문 연구기관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프로젝트 실소유주 기준 중국의 對美 FDI >

(단위: 억 달러, 건)

'09		'10		'11		'12		'13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17	83	46	107	48	124	73	85	140	106

자료원 : 로디움 그룹(<http://rhg.com/interactive/china-investment-monitor>)

- 일본과 마찬가지로 M&A 형태 진출이 對美 투자 주도

<유형별 중국의 對美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유형구분	'10		'11		'12		'13		'14. 1Q~3Q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그린필드	2	72	8	72	7	53	8	59	9	41
M&A	44	35	40	52	66	32	132	47	61	52
총계	46	107	48	124	73	85	140	106	70	93

자료원 : 로디움 그룹(<http://rhg.com/interactive/china-investment-monitor>)

□ (한국) 광업 투자 여부에 따라 연도별 對美 FDI 금액이 큰 편차

- '10년 이후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투자 규모가 큰 광업 프로젝트가 對美 FDI의 주종을 이뤄, 일반적으로 연도별 투자액이 큰 편차
- 미국 현지 기업 M&A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으나 실제 성사되는 건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저조
 - * '14년 발표 기준, 한국의 미국기업 대상 M&A 거래 규모(Value of Transaction)는 32억 달러에 불과 (Thomson One)

2. 투자대상 산업별 동향 분석

□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

- 최근 5년('09~'13년) 간 투자대상 산업별로 연평균 FDI 유치금액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3%를 기록
 - '14년도 3분기까지 제조업 내 FDI 유치액(잠정치)은 1,057억 달러에 육박하며 '13년 유치액인 950억 달러를 초과
- 여타 산업은 對미 FDI 유치에 있어 특정 흐름을 형성했다기보다, 대형 M&A 등 단발성 이벤트에 따라 연도별 금액이 큰 편차
 - 일례로,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09년부터 '12년까지 투자 금액이 회수되는 양상이 굳혀지는 듯 했으나, 앞서 언급한 일본 소프트뱅크의 스프린트 넥스텔 M&A로 '13년 투자금액은 폭발적으로 증가

<주요 투자 대상 산업별 FDI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산업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
제조업	53,416	91,896	83,627	93,825	94,973	83,547
금융·보험	28,483	35,514	16,719	4,674	24,075	21,893
소매	4,168	23,806	26,548	21,591	31,733	21,569
예금기관(은행)	16,586	12,367	26,049	-752	4,008	11,652
정보통신	-7,876	-10,199	-5,301	5,796	26,283	1,741
전문서비스	2,412	15,699	4,951	10,115	5,446	7,725
도매	11,628	-1,445	2,181	4,422	6,973	4,752
부동산	-1,021	-581	630	2,380	245	331
기타 산업	35,808	30,992	74,458	27,629	37,032	41,184
총	143,604	198,049	229,862	169,680	230,768	194,393

자료원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제조업 중에서도, 화학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

- 최근 5년('09~'13년) 간 투자대상 제조업별로 연평균 FDI 유치금액을 분석한 결과, 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41% 기록
- 에탄올 가격 급락에 힘입어 이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대거 진출에 따른 것으로 판단
 - * 셰일가스를 채취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에탄올 가격이 급락하면서, 석유에서 채취되는 나프타 대신 에탄올을 원료로 사용하면 원가를 30~5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설립 추진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FDI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산업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
화학	12,299	15,273	42,689	46,373	56,367	34,600
운송장비	16,035	11,145	6,431	6,941	706	8,252
기계류	5,402	1,234	1,805	8,479	12,079	5,800
1차/조립금속	3,894	4,816	5,026	-16	2,035	3,151
식품	2,756	14,545	-1,127	3,544	13,230	6,590
컴퓨터/전자제품	-3,974	5,399	3,385	5,513	-2,960	1,473
전기기기/부품	2,187	-121	2,562	23,100	6,410	6,828
기타	14,817	39,605	22,856	-110	7,106	16,855
제조업 총	53,416	91,896	83,627	93,825	94,973	83,547

자료원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작성자

- | | |
|----------|--------|
| ◆ 워싱턴무역관 | 김병우 대리 |
| ◆ 선진시장팀 | 이병탁 대리 |



Global Market Report 14-055

對美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분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